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2년도 학술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2년 12월

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책임자 : 김 정 학

위 원 : 박 태 현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letter from the author to the editor, dated 10/10/1964. The letter discusses the author's interest in the subject of the journal and the author's hope that the journal will b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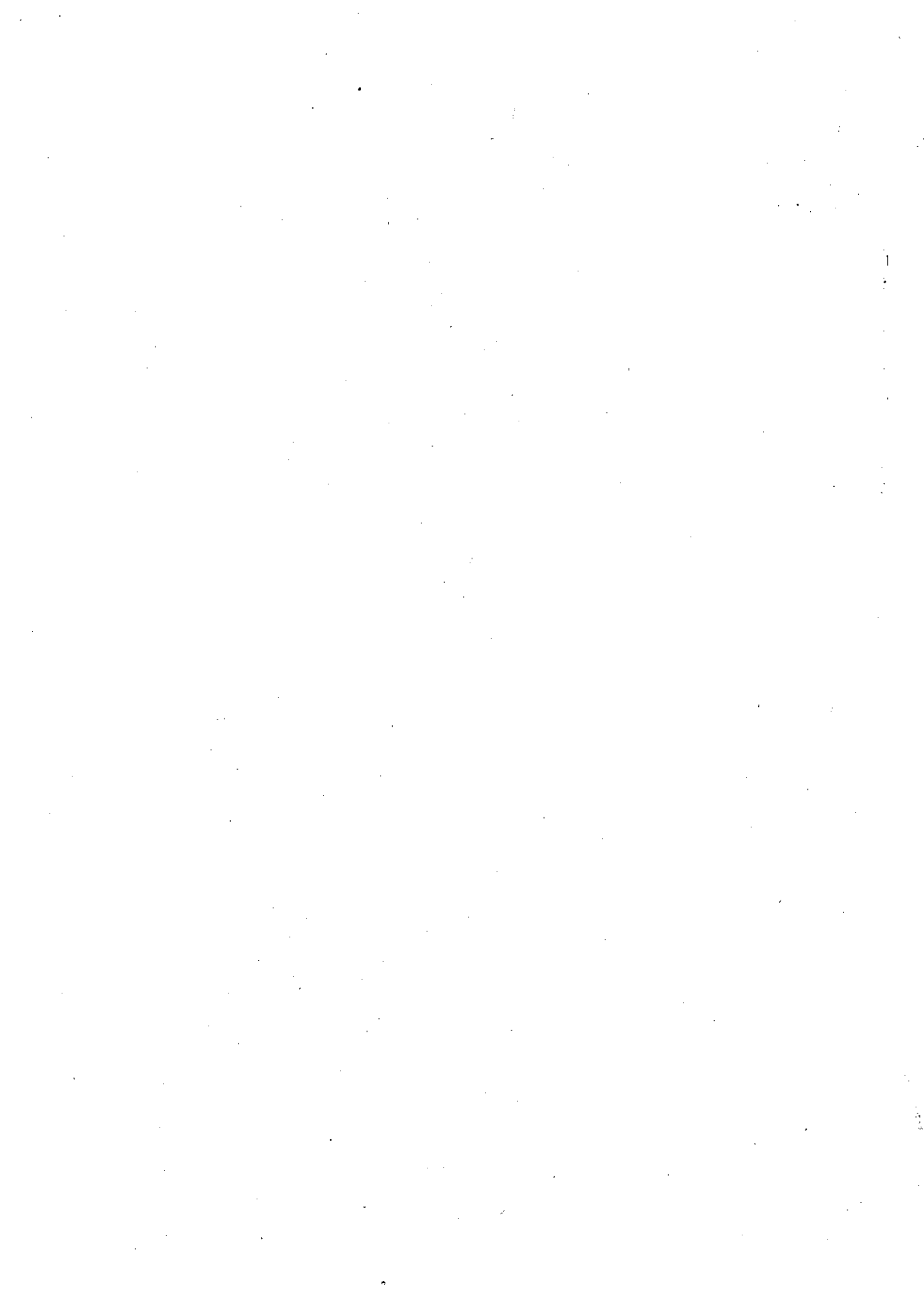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is a letter from the editor to the author, dated 10/10/1964. The editor expresses his interest in the author's work and his hope that the author's work will b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field.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is a letter from the author to the editor, dated 10/10/1964. The author expresses his interest in the subject of the journal and his hope that the journal will b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field.

目 次

I. 南北韓人の 意識構造의 史的考察 3

II.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의 價值觀에 對하여 25



I. 南北韓人の 意識構造의 史的考察

金 廷 鶴

머 리 말 :

36年間の 日帝의 植民地統治의 事에서 벗어나 獨立의 기쁨을 누릴 사이도 없이 國土가 兩斷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痛歎하여도 지나칠 수가 없다. 더욱이 그 한쪽이 共產主義治下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不幸한 일이다. 解放 26年이 흐른 오늘날까지 통일은 먼 하늘의 구름을 잡는 듯 莫然하게 생각되었던 그때에 七·四共同聲明은 青天에 벽력과 같이 全民族을 놀라게 하였고, 그 聲明에서 約束되었던 南北共同調節委員會의 會議가 거듭되어 統一의 課題는 더욱 具體的으로 다루어져 全民族의 간절한 念願인 統一에 의 길로 한 거름씩 가까워지고 있다.

韓國 民族은 比較的 單一民族으로서 言語·習俗등이 대체로 같은 것임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리하여 오랜 歷史에 있어서 民族的·文化的 共同體를 이루고 있었음은 오늘날 統一에 대한 有利한 條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南北韓은 반듯이 統一될 것이며, 또 統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統一이 南北韓의 經濟的·文化的 發展을 얼마나 促進시킬 것인가는 三尺童子도 다 알고 있는 일이며, 南北韓 住民의 大部分이 統一을 熱望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26年동안이나 完全히 다른 政治體制에 살아온 南北韓 住民은 意識構造에 相當한 差異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장차 南北 接

觸, 또는 統一을 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條件이 될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겠다. 그런데 意識構造라는 것은 短時日에 形成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歷史的課程을 밟아서 形成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南北韓人의 意識構造를 歷史的으로 考察하여 보려고 하는 것이다.

本 論 :

1. 韓國民族은 하나이다.

- 韓國民族의 形成에 對하여

南北韓人의 意識構造를 比較 研究하기에 앞서 우리 民族의 形成課程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完全히 다른 政治體制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南北韓이 統一하려면 그러한 政治體制나 이데올로기를 超越한 目標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共同의 目標로서 韓國人은 同一民族이라는 意識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즉 民族은 階級이나 이데올로기를 超越한 全體的인 利益을 追求하는 運命共同体이기 때문이다. 우리 民族은 歷史的으로 오래 동안 單一民族이란 意識을 가졌고, 言語·習俗등이 일찍부터 交流 同和하여 하나의 文化圈을 이루었다. 이것은 古代의 여러 部族이 統一國家를 形成하는데 대단 有利한 條件이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韓國民族은 비교적 單一民族이라고 하였다. 「比較的」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民族이든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完全히 순수한 單一民族이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人類는 原始時代로부터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놀라울만치 먼 地

域에의 移動이 많이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人種間的 混血이 많이
行하여졌던 것이다. 韓半島는 亞細亞大陸의 東쪽 끝에 位置하여
있기 때문에 人種的・文化的 中心地로부터는 辺境地帶라고 하겠다.
따라서 韓國民族은 韓半島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地域으로
부터 移動하여 왔던 것이다.

지금 旧石器時代의 것은 잠깐 두고, 新石器時代로부터 靑銅器時代
까지로 보면 北方亞細亞의 民族移動의 물결이 여러번에 걸쳐 滿
洲와 韓半島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新石器時代에는 古亞細亞族¹⁾
(Palaeasistics)의 한 갈래가 滿洲를 거쳐 韓半島에 이르렀다.
이들은 海岸이나 河川流域에 살면서 主로 漁撈生活을 하였다.
다음 靑銅器時代에는 北方亞細亞의 草原地帶에서 收畜을 主로하던
알타이族이 南下하여 滿洲와 韓半島에 定居하였다. 이들은 主로
丘陵地帶에 살았는데 韓半島는 氣候와 雨量등이 條件이 滿洲보다
農業에 더 適合하기 때문에 일찍 農耕生活로 들어갔다. 農耕文化
는 처음에는 華北地方으로부터 發源사가 傳하여졌던 것이나, 靑銅
器時代의 後期에는 華南地方으로부터 發源사가 傳하여졌다. 하여
튼 靑銅器時代人은 이와 같은 農耕文化에 依한 生産力과 金屬文化
의 優越로 因하여 新石器時代人을 征服 同化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靑銅器時代의 알타이族이 한국 민족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靑銅器時代以後에 커다란 民族的交替는 없었던
듯 하며, 靑銅器時代人이 그뒤의 鐵器文化를 받아들여 以後의 歷史

註 1) 金廷鶴 編 「韓國の考古學」日本 河出書房 1972 參照

를 발견시킨 主人公이 되었다. 2)

다만 이 北方族 外에 新石器時代 또는 青銅器時代 以後에 華南 地方以南의 南方文化가 一部 들어왔으며, 아마 一部에는 南方民族의 移勤도 있었던 듯 하다. 新石器時代의 南方文化의 傳播에 對하여는 아직 確실한 證거가 發見되지 못하였으나, 青銅器時代以後에는 여러가지 證거가 發見되었다. 例컨대 考古學的 證拠로서는 支石墓, 有段石, 靴形石 등이 있다. 民俗學的 證拠로서는 複葬制, 출다리기 등이 있고, 文獻上으로는 文身의 風習등이 있다. 3) 이러한 民俗學的 資料들은 그것이 어느때 전하여졌는지 年代를 斷定하기가 어려우나, 이러한 習俗이 南方아시아의인 文化임에는 틀림 없다. 또 南方文化로서 決定的인 것은 稻作文化이다. 4)

위의 같이 新石器時代와 青銅器時代에는 北方아시아로부터 民族移勤의 물결이 여러번 있었으며, 그것은 北韓과 南韓을 통틀어 같은 分布를 보았다. 한편 南方文化의 傳播 루우트는 一部는 처음 西北地方에 傳하여졌으나, 地理的관계도 있어서 더 많은 要素가 南韓地方에 分布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全體的으로 는 韓國民族과 文化는 北方아시아의인 것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北韓과 南韓을 通하여 差異가 없다. 다시 말하면 韓國민족은 알타이族으로서 單一民族이라고 할 수 있겠다.

註 2) 金廷鶴 編 前掲書 參照

註 3) 三國志 總志 東京伝 韓榮

註 4) 金廷鶴 (共著) 「日本農耕文化の起源」 日本 角川書店
1963. 參照.

人種을 分類하는데 여러가지 體質的特徵을 基準하는 것은 다 아
는바와 같다. 例컨데 頭形, 身長, 鼻形, 眼色, 毛髮組織, 皮膚色등을
綜合적으로 考察하는 것이다. 頭形은 頭蓋骨의 너비, 길이, 높이등
을 測定하고, 너비와 길이의 比例를 計算하여 頭型指數로서 表示한
다. 이러한 頭形은 人種을 分類하는데, 중요한 基準이 된다. 頭
型은 後天的으로 多少의 變化가 있는 일이 있으나, 대체로 人種의
特徵을 表示한다. 身長도 營養狀態나 其他 社會的條件에 따라 變
하는 일이 있으나, 대체로는 그 人種의 遺傳的特質을 나타낸다.

우리 나라에서는 先史時代의 遺族인 함경북도 雄基 近에서 人
骨이 발견되었는데⁶⁾ 그 중 男子의 頭蓋骨 4個를 計測한 것에
依하면 頭長幅指數가 86.9, 85.5, 77.2, 75.4 이다. 즉 2個는
短頭型으로서 높은 指數를 보이고 다른 2個는 中頭型의 指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두 그룹의 指數의 差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或 種族的差異에 起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短頭型은 알타
이族이고, 中頭型은 古아시아族인 可能性이 많다. 왜냐하면 現代
北海道 아이누 87名의 頭蓋骨 計測에 依하면 頭長幅 指數가 76.0
이고, 樺古 아이누 21名의 頭長幅 指數가 75.1로서, 다 中頭型에
屬하는 바, 이들은 古아시아族에 屬하기 때문이다.⁷⁾

現代의 韓國人의 頭蓋骨을 計測한 것에 依하면, 그 頭長幅 指數
가

註 6) 今村豊 「朝鮮 함경북도 雄基 近 で發掘された石器時代人 人骨に

註 7) ついで」人類學 誌 第47卷 12号 pp.447 ff

金廷鶴「韓國民族形成史」韓國文化史大系第1卷

韓國北部 84.59

韓國中部 83.12

韓國南部 84.77

로서 短頭型의 상당히 높은 指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雄基 人骨 4個 中 2個의 指數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先史時代의 韓國人과 現代人의 頭長幅指數는 顯著한 短頭型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短頭型은 한국으로부터 滿洲·蒙古를 거쳐 中央아세아에 이르고 있다. 蒙古人 男子 102人에 對한 頭蓋骨 測定에 따르면 81.8을 보이고 있다. 韓國人에 있어서도 어떤 調査者의 경우는 男子 178人에 對한 短長幅指數가 81.5를 나타낸 것이 있다. 이것은 調査對象者의 數라든지 計測方法에 따라 약간의 差異를 보인다. 하여튼 蒙古族과 우리 民族의 頭型指數는 短頭型의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韓國人의 身長에 있어서도 調査表에 따라 약간의 數字的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도 調査對象者의 人員과 地域에 따른 것이다. 北部 韓國人이 가장 長身이며, 男子平均 166.00 cm이고, 中部는 163.37 cm, 南部는 162.51 cm이다. 世界人口의 身長에 比較하면 韓國人의 身長은 中身長이 되고, 極東에 있어서는 長身長에 屬한다. 極東에 있어서 가장 높은 身長은 北中國人의 167.00 ~ 168.00 cm이다. 南中國人의 身長은 161.00 ~ 162.00 cm로서 北中國人과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分明히 種族的起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南中國人은 東南아세아人과 같은 系統이다.

身長에 있어서도 韓國人에 가장 가까운 것이 蒙古族・통구스族이다. 통구스族의 身長은 165.00 ~ 163.59cm이고, 蒙古族의 身長은 165.00 ~ 164.00 cm로서 北部 韓國人의 身長에 가깝다.

民族을 区分하는데 있어 言語가 중요한 한 要素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韓國語는 文法体系, 音韻, 語彙등에 있어서 大体로 알타이語族에 屬한다. 알타이語에 共通되는 특징으로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알타리語의 名詞에는 인도・유럽語와 같은 單數・複數의 區別이 없다.

2. 알타이語의 名詞에는 인도・유럽語와 같은 男性, 女性, 中性의 區別이 없다.

3. 알타이語에는 인도・유럽語와 같은 冠詞가 없다.

4. 알타이語에는 助詞(後置詞)가 있다.

5. 알타이語의 形容詞, 副詞는 名詞・動詞의 앞에 온다. 目的語는 動詞의 앞에 온다.

위와 같은 特徵은 알타이語에 共通되는 것인 바, 이러한 특징은 韓國語와 日本語에 있어서도 같다. 또 알타이語에 共通되는 특징으로서 母音調和가 있다. 이것은 母音에 두 그룹, 또는 세 그룹의 性質의 것이 있어서 한 낱말에 같은 性質의 母音끼리 모이고, 다른 母音끼리는 모이지 않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8)

韓國語와 알타이語와의 共通性에 關하여는 람스렛트(G. J. Ramstedt)

註8) 金廷鶴, 上掲書 및 大野書「日本語の起源」參照

의 開拓的인 研究⁹⁾ 및 포페(N. Poppe), 李基文氏등의 研究가 注目된다. 5)

우리는 위에서 體質·言語등의 특징에 있어서 한국민족이 알타이族에 爲하는 것임을 보았다. 이밖에도 習俗등 其他 文化에 있어서도 比方아세아民族의 특징을 證明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割愛하겠다.

2. 李朝時代까지의 社会構造와 意識構造

우리 나라는 李朝時代까지 農業經濟의 段階에 있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런데 南韓과 北韓은 農業形態가 약간 달랐으며, 따라서 社会構造도 약간의 差異가 있었다. 즉 古代에 있어서는 北韓은 氣候와 雨量의 관계로 밭농사가 많고, 벼농사가 적었으며, 南韓은 그와 反對로 벼농사가 많고 밭농사가 적었다. 水稻栽培의 技術과 灌溉施設의 改良으로 벼농사가 차츰 北으로 普及되어 갔으나, 李朝時代に 이르기까지 그것은 微微한 상태였으며, 南韓地域이 한국의 穀倉地帶를 이루었다. 이러한 農業形態의 差異는 歷史的으로 南韓과 北韓의 社会構造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兩地域 住民의 意識構造에 差異를 가져왔다고 보겠다.

單位面積에 있어서의 生産量과 貨幣價值에 依한 收入은 水稻栽培

註 9) Ramstedt, G. J., Studies in Korean Etymology 1949.

註 5) G. 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reviewed by N. Popp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3, No. 3. 4. 1950.

가 田作에 倍加되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따라서 南韓과 北韓은 農業生産力에 있어서 懸隔한 差異가 있었다. 그런데 水稻栽培에는 多澆과 6, 7, 8月頃에 많은 降雨量이 必要하다. 南韓地域은 農産地帶에 包含되어 大体로는 이러한 條件에 맞으나, 單약에 適期에 降雨量이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은 경우에는 旱災 또는 水災가 된다. 李朝實錄의 記錄을 通하여 보면 이러한 水災와 旱災가 穀倉地域인 三南地方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實錄에 따르면 큰 水災나 旱災가 平均하여 三年에 한번씩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몇번 이러한 水災나 旱災를 만나면 小地主나 小作人들은 거의 農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北韓이나 滿洲地方으로 流離民이 되어 떠나게 되었다. 그 結果는 三南地方에 있어서의 土地의 兼併이 많아졌으며, 大地主에 依한 土地所有의 集中이 甚하게 되었다. 물론 大地主에 依한 土地所有의 集中은 後進社會에 있어서의 小作條件 등의 原因도 있었던 것이나, 위와 같은 水利施設의 不備로 因한 自然의 災害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이러한 水災나 旱災는 北韓의 田作地帶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適期에 多量의 降雨가 要하는 南韓의 水稻作地帶에 더 被害가 많았다는 말이다. 위와 같이 小數人에 依한 土地所有의 集中은 南韓에 있어서 社會構造의 變化를 가져왔다. 즉 階級的인 隔差가 甚하여졌다는 말이다.

農業을 經濟의 基本으로 하여 왔던 한국 社會에 있어서 穀倉地帶를 가진 南韓이 歷史적으로 政治的·文化的 主導力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兩班階級이 形成되고, 班常差別意識이 深化되었다.

이러한 班常意識은 北韓에 있어서는 그다지 深化되지 않았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의 意識構造의 가장 뚜렷한 差異라고 하겠다.

土地를 주로 한 經濟構造와 班常의 階級意識은 中國에 있어서 封建社會를 基礎으로 形成된 유교사상의 受容을 가장 容易하게 하였다. 특히 李朝時代의 南韓의 社會構造와 意識構造는 유교思想의 가장 適切한 溫床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유교思想은 班常의 階級意識을 合理化하고, 더욱 強化하였다.

위와 같은 南韓의 意識構造는 李朝末葉의 開化思想과 新文化의 受容에 對하여 頑強한 反對勢力이 되었다. 李朝末葉의 開化思想은 주로 日本을 通하여 受入한 것이기 때문에 南北思想의 反對는 日本의 侵略勢力의 浸透에 對한 反感의 뜻도 包含되어 있었지만, 開化思想이나 新文化에 對한 反對는 특히 유學者들에 依하여 主動되었다는 點에 注意할 것이다. 그러나 開化思想이나 新文化는 根源的으로는 西洋 近世의 自由 平等思想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韓國에 受入됨에 있어서도 兩班과 常民의 階級打破등을 두드러지게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것이 특히 유교思想이나 班常意識이 濃厚한 階層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傾向은 班常意識이나 유教思想이 比較的 넓은 北韓地域에 있어서는 最近世에 있어서 開化思想과 新文化에 對한 抵抗이 比較的 적었던 것이다. 北韓의 經濟的地盤은 李朝時代에 이르기까지 拔擢사가 主였고, 拔擢사는 南韓에 比하여 훨씬 적었다는 上述한 바와 같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氣候와 雨量의 條件때문이었다. 灌

灌溉施設이 普及되기 前에는 平野가 적은 北韓地域은 主로 발농사에 依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는 土地所有의 集中이 比較的 적었고, 自作農이 많았으므로 말하자면 中産階級이 많이 形成되었던 것이다. 10) 그러므로 兩班階級과 常民階級과의 階級分化가 比較的 深化되지 않았다.

3. 日常下의 社会構造와 意識構造

日帝의 統治는 典型的인 植民地政策이어서 韓國을 第1次 生産品의 供給地로 만들고, 日本의 工業生産品의 市場으로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韓國에 있어서의 工業의 발달을 行政, 金融, 關稅등 여러가지 方法으로 沮害하는 政策을 썼으나, 原料의 生産, 特히 食糧의 增殖등 장려하였다. 또 日本統治에 協助를 얻기 위하여, 또는 韓國人의 民族感情을 懷柔하기 위하여 韓國人의 地主階級에 對하여는 稅金의 低率등의 方法에 依하여 保護하는 政策을 썼다. 그 理由의 다른 하나는 韓國人의 地主階級은 儒敎의思想에 依하여 商工業을 賤視하므로 그러한 地主階級이 商工業의 企業家로 轉換할 念慮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東洋拓殖会社 또는 日本人 高利貸金業者들을 支援하여 韓國 農村에 浸透하여 中小農民의 土地를 併占케 하였다. 이들의 浸透는 特히 南韓地方에서 甚하여 解放前까지 東洋拓殖会社와 日本人 高利貸金業者들의 土地 併占은 全土地의 큰 比重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韓國 中小農民은 大部分이 小作人으로 轉落하여 農業生産을 위한

註 10) 改造社版「日本地理大系」 12 朝鮮篇 參照

勞役을 담당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11)

日帝統治下에 韓國에 있어서도 商工業이 어느 정도 발달한 것은 事實이다. 그리하여 工業에 있어서의 總生産高가 韓日合邦前에 比하여 상당히 增大된 것도 事實이다. 12) 이러한 事實이 業者들에 依하여 日本의 韓國統治가 韓國에 有料하였다고 論하는 根拠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工業生産의 所有者가 누구이며, 그 工業發展의 利益을 누가 차지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民族別 工業生産高에 관한 資料는 대단히 적은데 Grajdauzev의 上掲書에 1928年度의 統計資料가 參考가 될 것이다. 이 資料에 따르면 生産業체의 數는 日本人과 韓國인이 비슷한데 그것은 韓國人の 生産業체는 거의 家内工業의 小規模의 것이기 때문에 數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總生産高에 있어서는 日本人과 韓國人は 天壤의 差가 있다. 즉 韓國에 있어서의 工業生産의 75퍼센트가 日本人 企業家の 것이다. 13) 더우기 이것은 1928年の 統計를 資料로 한 것인 바, 이 때는 日本이 韓國은 併合한지 日淺한 때이며,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近代的인 大規模의 日本人 企業이 일어나지 않은 때의 統計資料인 點을 留意할 必要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1928 以後 獨立前까지 한국에 있어서 日本人의 工業活動은 놀랄만치 增大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手工業的段階의 韓國

註 11) Andrew J. Grajdanzev, Moderu Korea, Newyork, 1944.

pp. 105~112 參照

註 12) A. J. Grajdauzev, op. cit., p. 148 參照

註 13) 上掲書, p. 172 參照

人企業家와의 總生産高의 隔差는 더욱 놀랄만치 커졌던 것이다.

또 韓國人 企業家の 工業生産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注意할 必要가 있겠다. 1938年의 統計에 依하면 韓國人 工業生産으로는 釀酒業이 제일 많고 다음이 紡績業이고, 다음이 化学工業(主로 고무靴)이고 다음이 精米業이다. 여기서 釀酒業은 燒酒나 濁酒등의 在來式 小規模의 것으로서 京鄕各地의 이러한 釀酒業이 거의 韓國인에 依하여 經營되었다. 다음에 紡績業이라는 것도 大部分은 小規模의 家内工業的인 것으로서 絹織, 麻布등이 主였다. 다음에 化学工業이란 것은 고무신 製造가 大部分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韓國人의 特有한 고무신의 製造이므로 日本人의 競争者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음이 精米業인데, 이것도 各地方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小規模의 精米所가 다 韓國人의 經營으로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韓國人의 工業이란 것이 거의 土着的인 生産品이고, 前近代的인 手工業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比하여 日本人의 工業生産을 보면 判異한 것이 注目된다. 역시 上揭한 바와 같은 1938年의 統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順位가 되는 것이 化学工業인데, 이것은 韓國人의 그것이 겨우 고무신製造業이지만, 이것은 本稿的인 近代의工業인 것이다. 이것은 韓國人의 化学工業生産의 五十倍를 넘는다. 다음이 金屬機械工業인데, 韓國人의 20倍가 넘는바 이것은 近代工業의 王産인 것은 다아는 바와 같다. 다음이 紡績業인데, 이것은 물론 韓國의 그것과 같이 家内工業的인 것이 아니라, 本稿的인 工場生産인 것이다. 다음이 機器

工業인데, 優秀한 製品은 거의 日本人의 独占한 것이다. 14)

위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近代의 工業이란 것은 거의 日本人의 独占하는 것이 되었으며, 韓國人の 工業이란 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거의 土着的 手工業的인 것이었다. 이 밖에 韓國인이 消費한 工業生産品은 大部分이 日本内에서 製造된 商品이란 것은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日帝 統治下에서 韓國人の 工業은 資本・技術面에서 日本人에게 競争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植民地政策에 依하여 여러가지 方法으로 日本人의 企業을 支援하여 주었으므로 韓國人の 工業이 발달할 与件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도 世界の 다른 植民地와 같이 日本 帝國主義의 經濟的 収奪의 対象으로만 存在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韓國의 資本主義的發達이 沮害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韓國은 李朝末에 있어서나 日帝統治下에 있어서나 資本主義的 發達을 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近代的인 市民革命을 거치지 못하였다. 韓國은 如前히 農業國家였고, 封建的인 身分意識이 그대로 持續되어 왔다.

共產主義는 開和하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高度成熟의 段階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矛盾을 批判하며, 부르조아지에 對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治를 目標로 한다. 그런데 上記한 바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는 資本主義가 成熟한 일이 없으며, 부르조아지에 對한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意識은 深化되지 못하였다. 韓國은 植民地로서의 農業社會였으며, 農民이 全人口의 絶對多數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註 14) Grajdanzev, A. J., 上掲書. p. 176. 參照

日帝時代に 있어서의 韓國人은 植民主義에 對한 抗拒意識이 높았으며, 그것은 民族主義的인 社會運動의 性格을 띠었던 것이다.

日帝時代に 少數의 共產主義者들이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것은 主로 知識階級에 依한 理想主義的인 思想에 共鳴한 것이다. 또 韓國에 있어서는 帝國主義에 抗拒하는 民族意識이 共產主義에 同調한 것이다. 共產主義에 心醉한 一部知識人들은 共產主義理論을 억지로 韓國에 適用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國民多數의 共鳴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韓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運動은 日本帝國主義에 對抗하는 運動이었으며, 韓國人의 부르조아지에 對한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運動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日帝下의 共產主義運動은 水利組合反對, 小作爭議, 埠頭勞動者의 罷業, 中學生同盟休業등을 指導, 煽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運動은 어떤 것은 本然의 共產主義 鬪爭의 범주 안의 것이나, 大部分은 오히려 民族主義運動의 性格을 띤 것이었다. 그러므로 프로文學者들이 그들의 作品 題마로 한 것은 架空的인 資本家와 勞動者들 사이의 關係에 對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어느 作品이나 비슷한 公式的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韓國에는 上記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未發達로 因하여 프로文學의 題마에 貧困을 가져왔으며, 實社會에서 體驗되지 못한 스토리는 讀者에게 實感을 주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運動이나 프로文學運動이 國民에게 아필하지 못하고 不振한 것은 韓國 社會의 發達단계가 資本主義的成長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다. 이 點에 있어서 日本

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注意하여야 될 것이다. 韓國社会는 歷史的으로 近代資本主義의 발전 못하였으며, 따라서 意識構造에 있어서도 前近代的인 遺習이 그대로 持續되어 오고 있다. 이에 對하여는 아래의 「解放以後의 意識構造」에서 좀더 자세히 밝히고자 하지만, 結論만을 말하면 韓國의 社会發展段階는 近代의 社会에의 過程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前近代的의 意識構造의 革新을 促進하여야 되겠다는 것이다.

4. 解放以後의 南北韓의 意識構造

36年동안 日本의 殖民地支配에서 벗어나 尊貴한 獨立을 얻게 된 우리 國土가 聯合國의 戰敗的 分担線이었던 北緯 38度線이 美蘇兩國軍이 각각 38度線의 南北에 進駐하게 되므로서 國境 아닌 國境線으로 굳어버리고, 北쪽땅은 드디어 共產主義 政治體制下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共產主義政治體制란 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政治體制였던 것이다. 共產主義는 철저한 階級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李朝時代에 이르기까지 身分的差別意識이 深化되지 못하였다. 또 日帝時代에 있어서도 南北韓에 다 같이 韓國人資本에 依한 資本主義가 成熟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階級意識이 激化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社会的 思想的 基礎 위에 共產主義政治體制가 外的勢力에 依하여 뒤집어써워진 것이다. 그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北韓社会가 共產主義制를 必要로 하여서는 아니고, 北韓人의 大多數가 共產主義에 共鳴하여서도 아닌 것이다.

北韓共產政權은 말할 것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治를 目

標로 하고 있다. 政治的・社会的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要員은 出身性分이 프롤레타리아트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北韓은 李朝時代에 이르기까지 土地所有의 集中이 比較的 적었고, 日裁時代에 있어서도 資本主義로 未發達로 因하여 眞正한 意味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대단히 적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階級的 獨裁를 부르짖는 共產主義政權에 階級意識에 依하여 眞心으로 同調하는 人口의 數는 全人口에 對한 比率에 있어서 極히 적을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體制는 民衆의 自發的인 支持를 받기 어려우므로 그 基盤이 대단히 不安定하여 威脅, 監視, 強制에 依하지 않고는 維持되기 어려운 것이다.

北韓은 學問, 文化는 물론 體育까지도 오로지 黨을 위하고, 階級意識을 鼓吹하는 것은 目的으로 하고 있다. 學問研究機關으로서는 科學院・社會科學院・農業科學院・醫學科學研究院・教育科學研究院・山林科學研究院・經濟研究院・建設科學委員會 등이 있다. 15) 文藝政策에 있어서도 맑스・레닌主義政策을 받아들여서 黨的・階級的 思想을 宣傳하는 手段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或은 作品의 題마를 統制하고, 或은 作家를 現地에 派遣하여 民衆에 對한 黨的 思想을 宣傳하는데 利用한다. 또 創作家들에게는 一定한 作品量을 課하기도 하여 創作活動에 있어서까지 劃一主義를 強要하고 있다. 16)

體育政策에 있어서도 完全히 政治的 目的에 利用하고 있다. 그리

註 15) 국토통일원 「남북접촉관계자료집」 1972.3. pp.140ff

註 16) 국토통일원 전계서 pp.137 ff.

하여 體育의 目的을 共產主義의 人間改造, 國防力強化, 勞動力強化에 두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革命戰蹟地旅行, 平壤에서 白頭山까지 달리기, 千삼뜨기등을 한다. 또 學生과 勞動者에 對하여 體力檢定을 實施한다. 17)

위와 같이 北韓은 學問, 文藝 심지어 體育까지도 政治的目的에 利用하는 政策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党的 階級的意識을 高調하고, 共產主義의 人間으로 改造하려고 한다. 그러나 學問은 어떠한 政治理念이 올바른 것이냐 또는 한국의 現實에 適合한 것이냐를 自由롭게 研究하고 批判할 權利를 要請하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學問을 社會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文學과 藝術도 人間과 自然의 多樣한 바탕을 素材로 하여 그것을 藝術的으로 形象化하여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學問이나 藝術이 政治의 侍女가 되어야 되고, 共產主義理論의 公式에 맞추는 것 밖에 道理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政治體制下에서는 學問研究는 언제나 共產主義理論에 맞느냐를 머리에 두면서 研究를 近展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文學이나 藝術이 반드시 階級性을 鼓吹하고 共產主義思想을 宣傳하는 것이어야 된다면 그 素材가 極히 좁은 範圍안에 制限되어야 되고, 그 테마는 틀틀에 박은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한국에 있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文學이나 藝術의 테마가 더욱 公式的인 것이 될 것이다.

註 17) 上揭書 pp.41~89 參照

南韓에 있어서도 既述한 바와 같이 解放前까지 韓國人社会는 資本主義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市民社会의 意識構造가 形成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旧社会의 封建的身分意識이 많이 殘存하고 있다. 그러나 解放的 民主主義政治体制을 採用하게 되고, 經濟・文化등 모든 分野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基調로한 政策을 施行하게 된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오랜 經驗이 必要하고, 經驗을 쌓아감에 따라 改善하고 발전하는 制度이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상당한 時日의 經驗이 必要하다. 解放後 民主主義의 經驗이 짧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 生活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維新憲法의 制定은 이와 같은 南韓에 있어서의 民主主義的 体制의 缺陷을 是正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西洋에 있어서 民主主義는 近世의 市民社会에서 발전한 것임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民主主義는 封建貴族에 對한 市民階級의 鬪爭에서 일어난 것이며, 自由와 平等을 基調로 한 것이다. 그러나 封建的身分意識이 比較的 많이 殘存하여 있는 西유럽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 意識構造의 形成이 다소 더디었으며, 오히려 新世界의 美國에 있어서 民主主義的 意識構造가 빨리 形成되었던 것이다. 이와 比較하여 南韓과 같이 旧社会的身分意識이 比較的 많이 남아 있는 社会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 意識構造에로 變化하는 것이 상당히 더딘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兩班 常民의 身分意識이 自由 平等이란 民主主義的思想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旧社会의 精神의 支柱인 敎育은 身分意識에 依한 社会秩序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西洋 近世의 自由 平等思想과는 相反되는
점이 있다. 더우기 韓國 農村은 아직도 旧社会的인 身分意識과
유敎思想에 젖어 있기 때문에 民主主義가 實生活에 있어서 實踐되
기 어려운 傾向이 있다. 一例를 들면 農村社会에 있어서 協同生
活이 잘되지 않은 原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農村社
會는 旧社会的인 身分秩序에 의하여 上下의 縱的秩序는 잘되지만
좀 더 큰 社会協同에 必要한 橫的秩序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것은 農村에 있어서는 民族意識, 地域觀念, 班常意識, 등등 旧社会的
意識構造로 말미암아 自由로운 활발한 協同的活動이 어렵기 때문이
다. 이러한 現象은 後進社会 一般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社会發展
을 阻害하는 前近代的意識構造에 所致이다.

西洋에서 民主主義가 形成된 것은 앞에서 거듭 말한 바와 같이
封建貴族階級の 身分的特權意識에 抗拒하여 市民階級이 오랜 時日이
걸려 그들의 人權을 爭取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國民이 能力에 따라 自由競争에 依하여 榮達할 수 있는 길이 열
린 것이다. 그리하여 商工業의 발달에 따라 市民階級の 地位가
높아지고, 그러한 商工業이 學問과 知識을 더욱 必要로 하므로서
知識階級の 位置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西洋은 近世에
있어서 旧社会的 貴族階級出身이나, 市民階級の 出身이나 가리지 않
고 能力에 따라 出世 榮達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自由와
平等이 民主主義의 基調가 되었으며, 누구나 出身의 身分에 상관
없이 能力에 따라 榮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가장
중요한 目標이다. 이러한 自由競争에 依하여 階級交替가 自然스럽

게 되고, 따라서 急驟한 革命이 必없이 않은 것이다.

勿論 資本主義가 成熟함에 따라 貧富의 差가 甚하여지고, 資本家의 橫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러한 것은 民主主義制度下에서 議會政治나 勞動組合運動등 여러가지 方法에 依하여 끊임없이 調整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解放後 南韓에 있어서 工業은 急驟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都市와 農村의 隔差가 甚하여졌다. 農民은 아직도 數的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農民生活의 改善은 時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農業이 工業발달의 基盤이 되는 까닭도 있으나, 數的으로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農民生活의 安定은 곧 南韓社会의 安定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農民生活의 安定이 共產主義의 侵透에 對하여 가장 堅固한 방패가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이웃 日本이 公翼累力의 脅威를 받으면서도 社会的安定을 이루고 있는 것은 中産階級이 數的으로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農民의 生活이 安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農村이 歴史的으로 오랜 貧困에 沈滯되어 있는 위에 工産物과 農産物과의 價格의 隔差로 因하여 더욱 農民生活의 不安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새 마을 운동은 가장 時宜를 얻은 것이라 생각된다. 새마을 운동은 農村에 있어서의 意識構造를 革新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맺음 말:

위에서 南北韓人의 意識構造를 歴史的으로 보아왔다. 그리하여 南北韓이 社会構造에 있어서 약간의 差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곧 南北韓人의 意識構造에 있어서 다소의 差異가 있는 것을 證明하는 것인데, 이러한 意識構造를 달리하는 南北韓이 接觸 또는 統一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準備를 하고, 어떤 姿勢를 取하여야 될 것인가.

北韓에 있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歷史的으로 班常의 身分意識이 深化되지 못하였고 土地所有의 集中이 比較的 크지 못하기 때문에 比較的 自作農이 많고, 小作人이 적어서 農民들의 階級意識도 比較的 激化되지 못하였다. 또 上述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未發達로 因하여 資本家와 勞動者와의 階級意識도 深化되지 못하였다. 北韓은 이러한 社會構造 위에 共產主義 政治體制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階級意識을 鼓吹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부르짖는 共產政權은 그것이 스고있는 社會的基盤이 弱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無理한 社會的基盤 위에 쓴 共產主義는 強壓과 威脅으로서만이 그 維持가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社會生活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統制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나친 強壓과 威脅에는 精神的安定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自體的인 自由를 希求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이 接觸 또는 統一함에 있어서 北韓人은 南韓의 民主主義 體制下에서의 自由를 대단히 渴望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北韓人들이 될 수록 많이 民主主義社會에 接觸하는 機會를 주고, 그들에게 自由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七·四共同聲明은 이러한 南北韓의 接觸의 길을 트이게 할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서 國民이 다 같이 歡迎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II.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의 價值觀에 관하여

1. 問題의 提起

우리의 現實은 南北韓의 接觸을 論議할 程度로 成熟하고 있다. 歷史的인 轉換에로의 時期의 成熟은 그것에 따라 歷史的인 現實의 狀況을 形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狀況의 形成에로의 過程이 지금 첫 段階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課題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고 이 課題에 接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接近에로의 試圖는 論理的인 構想에 있어서 또는 理念的인 提示에 있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接近에로의 対応意識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確信한다.

南北韓의 接近에 대한 対応意識이各自에 있어서 注意 깊게 形成되지 않으면 接近에로의 試圖는 그 自体 危險스런 限界點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対応意識을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 이 対応意識은 우리의 意識內面에 있어서의 形成이며 우리의 精神에 있어서의 이 形成은 한 쪽에서는 우리들의 <現實에 根拠한 接近>이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들의 現實에 根拠하면서도 <統一에로의 첫 段階>로서의 接近이 있을 것이다.

現實에 根拠한 接近에 의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対応意識을 問題의 提起와 그 反省을 통하여 確固히 形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確固한 形成이 우리들의 信念으로 될 때 우리들은 獨自性에 뿌리 받게 될 것이다.

이 獨自性에 根拠하면서 <統一에로의 첫 段階>를 展望할 때 우리들은 主導的인 位置와 우리들의 優位性을 確保할 수 있을 것이다. 問題와 課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南北韓의 接近에 對한 対応意識의 形成에 있어서 主導的인 位置와 役割을 確保하여 우리들의 優位性을 保有할 수 있을 것인가?

現實에 對한 対応意識이 <價值>를 形成하고 그 價值를 選擇하게 한다. 말하자면 歷史的인 現實로서의 狀況에 對하는 人間의 対応意識이 바로 價值를 志向하는 것이다.

따라서 志向된 價值는 現實에 作用하는 것이고 現實에 規制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러한 規制를 통하여 現實을 現實로서의 生命 活動을 持統하는 것이다.

이 <志向된 價值>에 우리들의 價值觀이 依拠하고 있다. 價值觀의 定立은 그러므로 現實의 規制作用의 確立을 意味하게 된다.

價值觀의 差異는 現實을 規制하는 作用의 差異이기도 하다. 이 作用의 差異에 모든 評價의 差異가 依拠하는 것이고 이 評價의 差異에 우리들의 生活 態度가 또한 根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떠한 評價의 差異를 認知한다면 그것은 바로 生活態度의 差異를 認知하는 것이고 이 認知에 따라서 社會의 規制作用의 差異를 露出하는 셈으로 된다.

그러나 또한 社會의 規制作用의 差異는 그 差異에 相應하는 價值觀을 產出케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 侧面에서는 價值觀의 差異에 따라서 社會의 規制作用의 그것이 나타나고 다른 侧面에서는 社會의 規制作用의 差異에 따라서 價值觀의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特殊>에 불과한 種的인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特殊的인 것 다시 말하면 種的인 差異를 <普遍>的인 類어로 止揚 綜合하는 面을 展開하지 않을 수 없다. <特殊>와 <特殊>는 어제 인가는 이 <普遍>에로 志向되어 止揚 綜合에로의 길을 밟아가는 것이 論理的인 必然의 過程이기도 하고 歷史的인 進行的 過程이기도 하다.

실인즉 우리들도 이제 이 必然의 過程 그리고 이 歷史的인 進行的 過程에 直面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課題를 삼고 未來志向에로 충격을 받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一般的인 觀點에 있어서도 南北韓의 接觸은 未來志向的인 것이고 特殊的인 觀點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다만, 問題인 것은 이러한 接觸에 대한 未來志向的인 對應意識이 우리들에 있어서 어느정도로 深化되고 內面化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接觸이 機械的으로 이루어지고 다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들은 먼저 接觸에로의 未來志向的인 對應意識에 있어서 深化되고 內面化되는 過程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過程에 있어서 <特殊>의 區別을 認知하면서 그 區別을 넘어서는 <普遍>에로의 길을 우리들은 必然的으로 摸索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摸索은 接觸에로의 現實的인 政策에 <앞서서> 展開되어야 할 것이고 <뒤에서> 展開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対応意識이 確固 確實하게 內面的으로 深化되지 않고 있다면 接觸에 있어서 우리들은 對決하는 意識을 否定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否定할 수 없는 對決意識에 있어서 우리들은 모든 差異를 認知하고 이 差異의 止揚을 政策에 <앞서서> 究明하지 않을 수 없는 所以然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展望에서 <價值觀의 差異>가 問題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差異의 對決에 있어서 모든 것에 <앞서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價值觀을 <所望스러운> 것으로 確固 確實하게 意識으로 深化하는 것이라 하겠다.

同時에 深化된 것은 守護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서 現實에 作用하여 現實을 規制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普遍性> 다시 말하면 <同質性에 自覺된 普遍>에로의 價值觀을 <所望스러운> 것으로 確立하는 것이라 하겠다.

同質性에로의 自覺된 意識은 差異에 의한 對決을 解消시키는 意識作用이기도 하다. 이 自覺된 普遍은 確實히 <共一感>의 基盤인 것이다.

接觸은 이 基盤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政策的인 配慮>인 것이라 하겠다.

이 政策的인 配慮는 現實에 대한 具體的이며 強力한 힘의 作用에 대한 配慮이므로 위의 두가지 提起된 것을 內包하면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政策은 어디까지나 <主導的>政策이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一定한 價值觀에 未來志向의인 面에 있어서 依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 社会体制와 價值觀의 比較

社会体制의 差異는 必然的으로 價值觀의 差異를 가져온다. 이것은 自明한 事實인 것이다. 따라서 價值觀의 差異를 問題 삼을 때 우리들은 우선 이 事實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다.

社会体制의 差異라는 事實을 일단 肯定하고, 肯定된 基盤에서 價值觀을 定立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價值觀의 比較는 社会体制의 差異라는 觀點에서 問題됨 직할 것이고 거기에서 優位性을 確立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優位性은 또한 <人間本性>에 根拠하여 確立될 것이고 재차 <社会体制>에 根拠하여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에 있어서의 社会体制의 差異는 우리들에 있어서 有意的으로 形成된 差異가 아니라 受容되지 않을 수 없었던 差異였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受容된 差異>라 하겠고 이 事實을 認定하는 것이 重要な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差異는 지금도 形成되어가는 過程에 있는 것이지 形成이 完成된 것이라 断定할 수 없지 않을까 勿論 解放後의 4半世紀의 歷程을 통하여 漸次로 形成化의 過程을 거쳐서 固定化의 過程으로 進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過程에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리라 南北韓의 接觸은 差異의 固定에 그 基盤을 두기보다는 差異의 形成에로의 過程에 있어서의 한 時点에 始點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差異를 認識하면서 이 한 時點에 있어서 우리들의 優位性을 確保할 수 있는 모든 領域에 있어서 求心點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求心點이 <受容된 差異>를 <形成하는 融合>에로의 凝集이라 하겠고 總體的인 意志의 志向이라 하겠다. 동시에 이 求心點은 바로 價值觀의 形成이기도 할 것이고 價值觀의 確立에 대한 自覺이기도 하리라.

우리의 社會體制는 <民主主義의 體制>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領域의 求心點은 이 民主主義의 體制에 있고 우리들은 生命의 源泉도 여기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들은 <民主主義的인 人間型>에 根柢하여 民主主義的으로 生存하고 있다. 설사 아직도 民主主義的으로 生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生活 領域에 있어서 固定化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過程에 있다는 것은 事實인 것이다.

이에 反하여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體制는 <共產主義의 體制>인 것이다. 이 體制의 成立過程은 北韓에 있어서 적어도 옛 段階를 거친 過程이라 생각한다.

첫째 段階는 <受容된 段階>라 하겠고 둘째, 段階는 <強要된 段階>라 하겠고 셋째, 段階는 <強壓되는 段階>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段階를 区分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共產主義的인 人間型>의 形成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의 求心點은 따라서 여기에 集中하고 있는 것 또한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求心點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形成化에로의 過程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問題의 深刻性은 이 形成化에로의 過程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形成이 完成되면 그 形成은 다른 것에 대한 始發일 수 있는 可能性에 있는 탓에서 이다.

다른 것으로의 轉換에 대한 可能性이 閉鎖된 이 形成의 過程에 있다는 現實에 우리들은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社会体制에 대한 一般的인 差異는 必然적으로 그 社会体制와 關聯한 價值觀의 差異를 발생케 한다.

위에서 말한 求心點이 바로 價值觀인 것이다. 求心點에 差異가 있다는 것은 價值觀에 差異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差異點을 分明히 摘出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들의 測面에 있어서의 價值觀을 考察하자 우리들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意味>가 어떻게 反映되고 있는 것일까.

朝鮮日報에 連載된 李永鎬氏의 統計調査에 의하면 民主主義의 意味를 <自由>의 意味로 聯想하고 있는 國民이 調査對象者의 29%로 나타나고 있고 <自由>와 類似한 意味, 例컨대 自由保障이나 言論自由, 基本人權, 人間性 尊重 …… 등의 意味로 聯想되고 있는 比率는 80%로 나타나고 있다. (1) 따라서 우리들 國民의 大多數가 <自由>에 求心點을 두고 있는 價值觀을 形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들 人間에 있어서 이 <自由>는 所重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歷史적으로 <自由>에 대한 自覺이 欠如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自由를 自覺적으로 形成하려는 意志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勿論 傳統社会에 閉鎖性에 基因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自由>에 求心點을 둔 價值觀을 形成하고 있다는 것은 <人間의 本性>에 우리들이 根柢하여야 한다는 反證이기도 하리라 이러한 反證은 다음과 같은 說問에 있어서도 明白히 나

타나고 있다. 즉, "民主主義나 自由가 조금 犧牲되는 限이 있어도 經濟成長을 늦추어서는 안된다"와 "經濟成長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民主主義나 自由를 犧牲할 수는 없다"와에 있어서 전자는 37%로 나타나고 있었고 후자는 54%로 나타나고 있다. (2)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우리들의 價值觀은 <自由>에 強力하게 根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價值觀은 이 自由 그리고 이것과 聯關하는 價值에 依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社會體制도 여기에 依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北韓과의 對決에 있어서 우리들 南韓의 價值觀에 있어서의 主된 武器이며 唯一한 武器는 이 <自由>라 할 수 있겠다.

다른 價值觀은 결국 이 <自由>에 根本하여 派生된 從屬的인 價值 秩序일 뿐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라는 것은 政治에만 關聯되는 概念이라기 보다는 文化 全般에 關聯되는 概念이기에 現實的으로 價值觀을 問題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實際的인 運用面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直接的으로 政治와 關聯하고 있다. 따라서 民主政治의 方向에 있어서 이 根本이 重要視되어야 할 것이다.

民主政治의 方向에 있어서 우리들의 唯一한 價值觀이 確固하게 定立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北韓의 社會體制는 共產主義的인 體制라 하겠다. 따라서 共產主義的인 體制가 一般的으로 經過하는 過程을 그들 역시 밟고 있는 것 또한 自明한 일이다.

그러므로 一般的인 觀點에서 考察한다면 <共產主義的 人間型>에 로 人間을 變革시키는 價值觀에 意圖的으로 強要되고 強壓되어서

<人間變革>이 形成되겠끔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價值觀 自体가 <앞서서> 問題될 수 없고 언제나 <뒤에서> 提起될 뿐이다.

다시 말하면 <政治는 政治, 道德은 道德>이라는 側面 보다는 政治에 從屬된 道德으로 道德 自体가 政治的인 目的을 위한 道具的인 手段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否定的인 政治는 必然的으로 否定的인 道德을 要求한다. 그러므로 否定的인 政治는 <否定하는 價值觀>을 要求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否定하는 價值觀의 形成에 있어서는 언제나 強要와 強壓 그리고 이에 必然的으로 수반되는 彈壓에 前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一般的인 觀点은 그 社会体制에 있어서의 特殊的인 觀点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다.

그 社会体制에 있어서는 어디서나 저 一般的인 觀点에 基盤하여 特殊的인 形成이 可能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들은 이 두 側面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그들의 政策을 檢討하지 않을 수 없다.

共産主義的인 人間이란 어떠한 人間을 말하는 것일까 이러한 共産主義的인 人間에 대하여 金日成은 "共産主義的으로 배우고, 일하고 사는 사람"⁽³⁾이라 規定하고 있다.

말하자면 共産主義的인 人間을 規定하는데 있어서 그는 <共産主義的으로>라는 同義概念에서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千里馬>運動과 關聯하여 "千里馬 運動은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共産主義 人間으로 改造하는 훌륭한 大衆의 教養의 方法으로 되었다."⁽⁴⁾고 말하고 있다.

위의 것은 人間型的 規定이라 할 수 있겠고 뒤의 것은 方法的 提示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規定과 方法에 있어서 共通的인 것은 <共產主義 人間>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共產主義 人間에로의 改造는 그들의 體制를 無限으로 確立한 <千里馬>運動의 本質的인 意圖였든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 같다.

나는 여기에서 無限으로 確立하다는 것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共產主義 人間을 共產主義的으로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사는 側面에 있어서 無限으로 確立한다면 社會의 모든 領域은 根本的으로 이 體制의 <無限한 確立>에 從屬될 뿐이라 하겠다.

따라서 價值觀이 根本的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自体에 있어서 重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 根本的이고 基本的인 것은 體制의 無限한 確立을 意圖하여 <全國的 範圍의 共產主義 社會建設>인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은 “北朝鮮 社會發展의 抑制할 수 없는 要求로서 뿐만 아니라 北朝鮮 基地를 政治 經濟的으로 (勿論 軍事的으로도) 鞏固化해야 할 朝鮮革命의 절박한 要求로서 提起”(5)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告白하고 있다.

그들의 所謂 千里馬運動에 共產主義 人間에로 人間을 改造하는데 있었고 이것은 朝鮮革命의 절박한 要求로서 提起되었고 이 要求의 提起는 다시 全國的 範圍의 共產主義 社會建設이라는 政治的인 目的과 直結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政治的인 目的의 無限한 遂行過程에 있어서 要求로서 提起된 것이 바로 <共產主義 人間으로 改造>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共產主義 人間으로 改造하는 價值觀이 그들에 있어서 要求될 것이고 그것을 否定하는 價值觀은 存立할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自明한 일이다.

그러므로 北韓에 있어서의 價值觀이 問題가 된다면 그것의 根本은 오직 <共產主義 人間으로 改造>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모든 다른 價值的인 것은 여기에 根本하여 종속되고 과생되는 것이라 하겠다.

確實히 社会体制인 側面과 價值觀의 側面과는 相互聯関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民主体制가 多元的인 体制고 開放的인 社会고 동시에 이 社会에는 多元的인 階層이 存在하는 体制인 것이다.

그리고 이 体制에 있어서는 價值觀의 多元性, 多樣性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價值觀의 多元性이 바로 <自由>라는 根本的인 價值觀에 根拠하는 多元性인 것이다.

價值觀은 따라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可及的으로 形成해 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歷史的인 使命을 自覺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体制의 優位性을 自覺하면서 社会의 發展을 有意的으로 意圖할 때 우리들은 언제나 内實있는 價值觀을 自律的으로 形成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들의 可能性이 있는 法이다. 그런데 共產主義 体制은 一元的이고 閉鎖的인 体制라 하겠다.

全体的 集團的인 一律性이 유지되어야 하는 体制라 하겠다. 이러한 体制에 있어서는 價值觀의 可及的 形成이라는 것은 否定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形成해 가는 可能性에 있지 않고 오직 受容되지 않을 수 없는 一律的인 他律性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一律的인 他律性에 의한 強要된 受容은 그 自体 <獨裁主義>에 對의 價值觀이 定立될 뿐이라 하겠다.

價值觀이 提起되기에 앞서서 <獨裁者 原理>가 定立되어 그것이

提示되고 그提示에 例外가 許容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基本的인 것이 여기에서 具體的으로 考察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具體的인 展開에 있어서 南韓에 있어서는 <自由>가 그 리고 北韓에 있어서는 <共產主義 人間으로 改造>가 價值觀의 中 心的인 根本으로 要約된 셈이다.

3. 價值觀에 대한 対応意識의 比較

앞에서 우리들은 社會體制를 確立하고 있는 가장 根本的인 價值觀을 考察 比較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根本的인 價值觀에 우리들의 意識이 어떻게 対応하고 있는 것일까 實인즉 價值觀은 이 対応意識에 있어서 形成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対応意識의 分析과 考察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이 対応意識에 있어서 우리들은 <差異>를 認定하고 그 <差異>를 역시 対応意識에 있어서 解消시킬 수 있는 길을 模索하고 形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一般的인 觀點에 선다면 民主主義的인 體制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가장 根本的인 價值觀인 <自由>에 우리들은 対応意識을 形成하고 있는 셈이다. 한 意味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인 體制에 대한 우리들의 対応意識이 自由로서 形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共產主義的인 體制에 대한 対応意識이 <共產主義的으로 人間을 改造>하는 것으로서 強壓되어 形成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対応意識에 있어서의 <差異>의 深刻性은 바로 價值觀을 形成하는 價值 序列의 <差異>의 深刻性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社會의 全 領域에 있어서의 難點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民主主義的인 體制에 있어서도 이 対応意識의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銳利하게 分別할 수 있고 共產主義的인 體制에 있어서도 그 対応意識의 限界를 分別하여 提示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限界가 対応意識에 있어서 自覺되는 時期의 한 時點이 바로 價值觀에 있어서의 轉換의 時點이기도 하리라.

앞에 있어서는 <바른 것과 그릇된 것>과의 分別이 対応意識에 있어서 自覺적으로 形成되어야 하겠고 뒤에 있어서는 그 限界가 対応意識에 있어서 自覺적으로 形成되어야 한다.

이러한 形成이 體驗에 있어서 <事實>로서 確立될 때 우리들은 어떠한 接觸에로의 길을 摸索할 수 있고 接觸에로의 展望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우리들은 自由라는 價值觀에 根本한 対応意識에 있어서의 <바른 것과 그릇된 것>과를 檢討할 必要性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다.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性格은 人間의 自由와 尊嚴性을 確保하는 合理的인 政治制度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制度를 價值觀의 側面에서 考察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人間의 自由와 尊嚴性>의 確立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對한 対応意識에 있어서 自由를 다만 自然的인 自由로 생각하여 自己만의 本能 充足, 自己만의 安逸, 自己만의 幸福 自己만의 利益 追求 自己만의 權勢…… 등으로 體驗되고 그것이 體驗된 事實로서 確立된다면 이것은 確實히 <私人>으로서의 自由를 意味한다. <私的>이라는 Private란 語義는 빼앗는다, 약탈하다 (Privateer)이다. 빼앗고 약탈한다는 것이 自己의 自由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私人으로서의 자유>는 위에서 確立된 價值觀으로서의 <人間的 자유와 尊嚴性>에 対応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價值觀에 対応할 수 있는 眞正한 意味에서의 자유는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個체로서의 자유>를 意味하는 것이다.

個体的이라는 Individual의 語義는 分離 (diride) 되지 않는 것으로서 個체를 意味하고 이것은 獨自的인 存在者임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獨自的인 存在인 탓으로 자유임을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임을 意識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責任을 意識하게 될 것이고 歷史的인 使命을 自覺的으로 意識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個체로서의 우리들은 歷史的인 使命을 共感하면서 責任을 担持하는 것이다. 자유라는 價值觀에 対応하는 우리들의 意識에 있어서 體驗된 事實로서의 자유는 이러한 것이고 制度로서의 民主主義의 理想인 人間的 자유와 尊嚴性이라는 價值觀에 対応하는 자유도 이러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対応意識에 있어서 私人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個체로서의 자유가 自覺的으로 形成되고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 個체로서의 자유가 우리들의 対応意識에 있어서 事實로서 確立된다면 우리들은 民主主義의 體制에 있어서 價值觀的인 側面이 展開되리라 본다.

여기에서 根本的으로 重要한 것은 眞實과 謙遜이라는 價值觀인 것이다. 眞實에 個체로서의 各自의 判斷力이 根柢하고 있다.

그 判斷力에 있어서 異見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否定的 事例)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否定的 事例에 의하여 反省의 길을 얻게 되고 政

策 決定에 있어서 큰 잘못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自己 諒遜에 自己 批判이 根拠하는 法이다. 諒遜은 獨斷力에 對應하는 價值觀인 것이다. <諒遜이 政治上에 있어서 根本的인 德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Cohen) 고 強調하는 所以然은 獨斷論에 基因하는 絶對的인 要求를 피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勿論 現實的인 權力政治에 있어서 이러한 價值觀은 作用力이 있을 수 없지마는 그러나 價值觀의 定立에 있어서는 重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民主主義는 直接的으로는 政治에 關係하는 概念이기는 하나 그러나 間接的으로는 文化全般에 關係하는 概念이라 할 수 있다.

文化를 위한 價值觀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個體로서의 自由는 人間이 自律的이고 自主的임을 意味하고 있다.

自主的이라는 內實은 무엇일까 이 內實은 人間이 自然을 限定하고 改造하고 形成하면서 文化를 創造하는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文化를 위한 勞動>이 要請되는 것이라 하겠다.

文化를 위한 勞動에는 勇氣라는 對應意識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確實히 <文化가 勇氣에 對해서 의 戰鬪場인 것이다> (Cohen) 이 勇氣는 文化에만 關聯하는 것이 아니라 眞實과 諒遜과도 相應하는 價值인 것이다.

이러한 勇氣는 眞實과 諒遜과 相應하면서 國民全體를 위한 自律的인 精神의 姿勢인 동시에 한 쪽에서는 私人으로서의 我欲과의 사이에 다른 쪽에서는 專制 或은 獨裁와의 사이에 그리고 또한 自然과의 사이에 있어서 展開되는 對決에 있어서의 精神的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勇氣에 依拠하는 精神的인 것은 民主主義를 위한 <總體

意志>에 있어서 確固하게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 總體意志의 確固한 定立은 多數의 意志, 特殊의 意志없이 形成될 수 없는 것이다.

論理的으로 總體性은 數多性 特殊性 없이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의 體制에 있어서는 夫婦, 父子, 兄弟, 友人, 閣僚 등의 關係가 尊重되지 않을 수 없고 價值觀의 側面에 있어서 이 關係의 持續性이 重要한 것이다.

이 價值觀이 바로 愛情에 基盤을 둔 誠實인 것이다. 法과의 關聯에 있어서 價值觀을 形成하지 않을 수 없다. 民主主義的인 制度의 本質은 法의 運用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正義> 특히 <社會的 正義>라는 價值觀이 形成된다.

이 正義는 그것이 所謂 配分的 正義이든 整正的 正義이든 그 本質은 <平等>에 있는 것이다.

問題는 이 平等의 確保에 있지 않을까 自由에 대한 対応意識은 바로 이 平等에 대한 対応意識과 關聯하고 있다.

平等은 두 側面에서 問題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 物的인 것과의 關係에서 이다.

이리하여 두 側面에 있어서의 方向이 가능하다. 한 쪽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關係를 主로하여 物的인 것에 대한 關係를 從屬시키는 경우, 다른 쪽에서는 物的인 것에 대한 關係를 主로하여 그것에 사람에게 대한 關係를 從屬시키는 경우라 하겠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近代의 西歐가 後者의 方向에 서게 되었고 그 結果 現代思想에 있어서 分裂을 가져 왔든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確實히 우리들에 있어서 Oporia 다. 그러나 그렇다고

<社会的 正義>의 實現이라는 至難한 現實的인 課題를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自由라는 價值觀에 根本한 対応意識에 있어서의 <바른 것과 그릇된 것>과를 考察하면서 積極的으로 <바른 것>만을 찾아 보았다. 이러한 積極的인 價值觀이 적어도 民主主義의 方向에서 要請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現實이 그리고 모든 政策이 이와 같이 強調된 精神的인 것에 基盤하여 形成되고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對하여 北韓에 있어서의 價值觀의 根本인 <共產主義的으로 人間을 改造>하는 対応意識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限界가 自覺되어 轉換에로의 過程을 展望할 수 있을 것인가?

金日成은 "어떤 사람은 소비에트 方式이 제일 좋다하고 어떤 사람은 중공方式이 제일 좋다고들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들 獨自的인 方法을 이룩할 수 없다는 말인가?"⁽⁶⁾ (1955年)고 強調하면서 "우리 勞動黨은 勞動大衆의 戰鬪的인 前衛 部隊이다.

우리는 黨의 순수성과 통일성 및 鐵石 같은 學習을 견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鬪爭하여야 한다. 우리는 自內에 있어서 이러한 條件에 充實하지 않고서 敵과 鬪爭한다는 건 한갓 過誤를 범하는 것 밖에 안 된다"⁽⁷⁾고 말한다.

따라서 黨의 純粹性和 統一성을 유지하고 自內에 있어서 그 條件에 充實하기 위하여 宗派主義者를 除去하게 된다.

그리하여 1961年에 "반당적인 분파세력과 그들의 반동적인 理念 路線에 대한 우리들의 즐기 찬 鬪爭 과정속에 本黨은 일체의 분파의식을 根滅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냈으며 또한 朝鮮 共產主義 運動의 完全 無欠한 統一을 성취하는 歷史的 課業을 완수하였다."⁽⁸⁾고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언사와 그의 政策에 의하여

여기에 自명한 現象으로 나타난 것이 <獨裁>라는 形態라 하겠다.

따라서 이 <獨裁>에 対応하는 意識의 形成이 바로 <個人崇拜>
<카리스마的인 領導者의 偶像化>인 것이다.

이러한 対応意識의 形成은 不可避한 것이며 必然的이기도 하리라
이러한 対応意識으로 例外가 없겠음 돌아가는 과정이 積極的으로
提示되지 않을 수 없다. 이 過程이 <千里馬 運動>이라는 것이리라
"이리하여 千里馬 運動은 우리 나라 社會主義 建設에
서 우리 黨의 總路線으로 되었습니다." ⁽⁹⁾고 金日成은 말하고 있
다. 勿論 이 運動은 社會主義 競爭 運動인 동시에 強要된 犧牲
의 競爭이며 人民 搾取 強化의 運動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 體制에 있어서의 競爭이란 "人間勞動과 生
產活動의 極限을 競爭시키는 非人間的인 超生産 競爭 運動" ⁽¹⁰⁾이
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競爭 運動에 対応하는 意識이 바로 <共產主義를 위한 黨
的 榮譽>인 것이다. 이 意識에 있어서 形成되는 價值觀이 따라서
<犧牲的인 奉仕精神 및 獻身性>이라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것
은 그 自体 論理性에 根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消極分
子들과 保守主義者들은 낮은 公稱能力과 기준에 매어 달리고 과학
과 기술을 신비화하면서 대중의 창발력을 抑壓하려 하였으며 난관에
屈服하고 革新을 두려워 하면서 대중의 進進 運動을 저지시키려
하였다." ⁽¹¹⁾는 金日成의 實吐와 直接的으로 關聯하는 限에 있어
서의 價值觀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的으로 人間을 改造하는 速度의 保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價值觀으로서의 倫理性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倫理性이 欠如된 탓으로 超過 生産이 問題로 되는 것이고

<너 때문에 千里馬가 못되었다>는 攻撃的인 意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社會主義 改造와 建設은 熾烈한 階級鬭爭을 수반하였다" (12)는 그의 報告에 집약될 수 있으리라. 따라서 共產主義的으로 人間을 改造하는 모든 일은 결국 階級鬭爭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것이며 無意味한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 그 對應意識은 언제나 <階級的 自覺에 의한 階級鬭爭>이라 要約될 수 있다.

위에 引用한 그의 말에 있어서 우리들은 <치열하>이란 말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階級鬭爭에는 언제나 이 <치열>이란 手段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이것은 歷史의 教訓이기도 하리라.

北韓에 있어서의 모든 領域은 確實히 "共產主義 建設의 높은 速度를 保障" 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分명한 目的이 있다. 그 目的이 바로 <全國的 範圍의 共產主義 社會 建設>인 것이다. 이 目的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北朝鮮 基地를 政治 經濟的으로 鞏固化해야 할 朝鮮 革命의 절박한 要求로서 提起" (13) 되고 있는 것이 北韓에 있어서의 政策 意圖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全國의 共產化에 있다. 이에 對應하는 意識이 바로 <全國的 範圍의 共產化를 위한 北朝鮮 基地의 強化>인 것이다. 이러한 路線의 設定은 이미 朝鮮 勞動黨 規約 第1項에 明示된 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朝鮮의 모든 價值觀, 이것을 志向하는 對應意識 역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対応意識은 "우리 党은 모든 事業에서, 따라서 千里馬 運動에 있어서도 政治事業을 先행시키며 근로자들에 대한 共產主義 教養을 強化함으로써" (14) 만 오직 가능할 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언제나 <政治 事業을 先行>시켜야 하는 現實的인 制約 밑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政治上에 있어서의 現實的인 目的이 그 制約이라는 것이다. 價值觀도 그리고 그것을 志向하는 対応意識도 이 政治的인 目的에 의하여 制約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北韓의 모든 領域이 이와 같은 政治上에 있어서의 目的에 의하여 制約되고 따라서 이 目的에 根拠하여 共產主義的으로 人間을 改造해야만 한다면 바로 그 目的을 위하여 그리고 그 目的의 解決을 위하여 多元的이고도 多稱한 모든 目的과 手段, 그리하여 方途를 提示할 길이 없는지? 이러한 多元的이기도 多稱한 目的과 手段이 唯一한 目的과 手段보다도 優位性에 놓일 수 있다면 北韓에 있어서의 그 対応意識은 限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限界가 自覺된다면 우리들은 政治上에 있어서의 目的 意識이 唯一한 것으로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政治上에 있어서의 目的이 唯一한 制約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自覺에 根拠할 때 北韓도 역시 人倫의 側面으로 轉換될 것이고 이리하여 社會의 變革으로 視野가 擴大될 것이다.

4.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의 價值觀의 構想

價值觀에는 一般的으로 正, 反의 區別과 序列의 區別이 있는 法이다. 여기에서는 正, 反의 區別은 考慮되지 않고 다만 價値의

序列의 區別 問題를 問題삼고자 한다.

이 價値의 序列에 의하여 우리들은 一般的으로 人間의 類型, 社會의 類型을 區別할 수 있는 可能性에 서게 된다.

同時에 이 價値의 序列은 時代의 精神 社會의 Ethos를 決定할 수도 있다.

時代의 精神이나 或은 歷史的인 使命은 消極的으로는 現狀에 對하여 그 時代의 사람들이 어떠한 不滿을 갖고 있는가 積極的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願望하고 希求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一定한 價値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一定한 價値觀 그러므로 價値序列에 대한 一定한 精神的 態度가 그 時代의 사람들의 期待와 目的 그리고 意志하는 바를 決定하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一定한 價値觀이 世界像, 世界觀을 決定하게 될 것이다. 價値觀이 世界觀을 決定한다면 世界觀은 <倫理性>이 前提된 世界觀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接觸이 時代的인 要求로 歷史的인 使命으로 그리고 民族的인 絶對的인 念願으로 提起되는 歷史的 狀況의 成熟에 있어서 우리들은 果然 어떠한 價値의 序列에 精神的인 姿勢를 定立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南北韓의 <精神性>이 定立될 것이다. 社會体制의 差異 따라서 根本的 價値觀의 差異, 그리고 그것에 對應하는 作用으로서의 對應意識의 差異를 이 精神性에 根拠하여 接觸하고 接近하여 窮極的으로는 統一에로의 姿勢를 定立하고 統一된 韓國의 確立을 위한 基盤을 形成할 수 있을 것인가? <悲劇的인 것이 倫理的 範疇>라던 이 悲劇的인 것을 우리들이 克服하는 方途를 提示할 수

있을 것인지?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 이 方途의 提示가 바로 우리들에게 파
해진 歷史的인 使命인 것이다.

이러한 自覺을 특히 價值觀 즉, 價值序列에 있어서 究明할 수
있겠고 이 究明의 試圖가 우선 提示되지 않을 수 없다.

南北韓의 接觸은 窮極的으로 南北韓의 統一을 위한 基盤에 대한
始初的인 段階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接觸 自体에도 問題性이 있지 마는 그러나 보다 重要한
問題性은 <南北韓의 統一>인 것이다.

이미 앞에서 展開한 바이지 마는 北韓에 있어서는 이 統一이 바
로 政治上에 있어서 目的意識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全國的 範圍의 共產化를 위한 北朝鮮 基地의 強
化>가 그것이라 하겠다.

南韓에 있어서도 이것은 國民의 絶對的인 念願인 동시에 政治에
있어서도 언제나 前提되어 있는 先行條件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
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急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說問에 대하여 經濟安定에 이어서 <統一問題>로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 또한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15) 그렇다면 이것이
韓國에 있어서는 直接的으로는 政治上에 있어서의 目的意識으로 되
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間接的으로 政治上에 있어서의 意圖를 制
約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南韓에 있어서는 오히려 <國民의 絶對的인 念願>이라 생각되어야
한다. 北韓에 있어서는 政治上에 있어서의 目的意識이니 위로부터
아래로의 方向으로 擴大 強化되어 있고 南韓에 있어서는 國民의
念願이니 아래로 부터 위로 制約해 가는 方向에 있다.

그리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共產主義的으로 人間을 改造> 하는 價值觀이 上位로, 南韓에 있어서는 <自由>라는 價值觀이 上位로 位置하고 있다.

價值序列에 있어서 이 價值觀이 모든 것을 決定하고 왔고 決定하고 있다. 또한 決定해 가리라 본다.

이와 같은 差異에 根拠하면서 우리들은 相互間 接觸하고 있다.

接觸에는 언제나 共通的인 基盤이 先行되어 있어야 한다. 이 共通的인 基盤을 精神性에 立脚하여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

그리하여 差異를 止揚하는 共通的인 精神性에 價值序列의 上位 價值觀을 定立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이 上位 價值觀으로 <民族意識에 의한 單一民族의 共同体>을 提起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單一 그리고 同質的인 民族意識에 있어서 成長 發展해 왔다. 그리고 언제나 民族의 共同 運命體의 한 個體로 自負하고 왔다. 지금 우리들이 悲劇的인 分斷에 直面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南北韓은 언제나 同一 同質의 民族意識에 定位되고 있고 民族意識에 의한 <共一感>에 서고 있고 이러한 <共一感>에 結合될 수 있는 基盤이 形成될 수 있을 것이다.

價值觀의 差異는 <共一感>의 作用에 있어서 接近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共一感>에 基盤하여 個體인 個體가 接近 接觸할 基盤이 열릴 것이고 이것을 媒介로 하여 民族共同體가 形成될 것이고 다시 이것을 媒介로 하여 世界主義에로 志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民族共同體의 形成에로의 志向은 民族共同體에 閉鎖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世界에로 自己를 開放함을 志向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窮極的 目的으로 南北韓의 統一을 設定하여 그것에로의 過程으로서 南北韓의 接觸을 意圖한다면 이 <民族

意識에 의한 單一 民族의 共同体>의 形成에 로의 意志를 總體 意志로서 集約시킬 必要에 直面할 것이며 이것 이외에 上位의 價值觀이 없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 歴史的인 使命이 있을 수 없다.

<民族 共同体>의 形成이 價值觀의 上位에 定位되고 이 價值觀만이 統一에 로의 따라서 接觸에 로의 <共一感>의 基盤으로 된다면 다른 價值觀은 이 價值觀에 根拠하여 展開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이 價值觀에 根拠하면서 各各의 價值觀이 取捨選次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앞에서 展開하 対応意識에 있어서 形成된 것만을 問題로서 提示할 뿐이다.

民族 共同体는 自由로운 人間, 自由로운 人格 그리고 人間의 導嚴性を 確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目標에 대하여 無價值한 價值觀은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獨裁>에 対応하는 意識인 <個人崇拜>, <카리스마的인 領導者의 偶像化>는 그 自体 存立할 수 없게 된다. 北韓에 있어서의 이러한 対応意識이 民族意識으로 對自的으로 自覺化될 때 우리들은 어떤 실마리를 함께 차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南韓에 있어서는 <民主主義>에 対応하는 意識인 <眞實과 謙遜>에 透徹해야 할 것이다.

獨裁에는 否定的 事例가 認定될 수 없고 따라서 謙遜의 対応意識이 形成될 수 없다.

이와 아울러 個體로서의 自己의 判斷力이 根拠하는 眞實 또한 形成될 수 없다. 그러나 上位의 價值觀이 <民族意識에 의한 單一 民族의 共同体>에 定位되었다면 모든 獨斷的인 側面이 排除되어야 할 것이며 이 獨斷的인 側面에 대신하여 定位되는 價值가 바로

<眞實과 謙遜>인 것이라 하겠다.

民族共同體의 形成에는 언제나 無限한 涙과 눈물이 수반되는 것이다. 南北韓의 共通性은 어떤 制度를 無自覺적으로 受容하여 왔는데 있다.

여기에는 責任의 連帶感이 없었던 것이다. 소위 責任의 歸屬이 없었고 受動的 連帶나 能動的 連帶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民族共同體의 形成이 上位의 價值觀에 定位된다면 그것으로 無限한 獻身을 持續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를 爲하 党的 榮譽, 犧牲的인 奉仕精神 및 獻身性, 南韓에 있어서의 文化의 創造, 建設을 爲한 勞動같은 對應意識은 이 價值觀을 爲하여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역시 여기에 價值로서 <勞動精神, 奉仕精神 및 獻身性>이 意識에 있어서 志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價值觀은 이미 形成되어 있다. 그러나 作用 價值로서는 形成되어 있다. 다만, 그 方向의 差異가 있을 뿐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 方向을 轉換시켜 거기에 倫理性을 賦與하면 充分한 것이다. 이제 우리들에 있어서 要求되는 價值는 <勇氣>인 것이다. 이 勇氣는 多方面에 展開되는 것이다.

앞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은 여기에서 한번 더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我欲에 대한 制限의 勇氣, 自然을 限定하여 形成하는 勇氣, 專制와 獨裁에 대한 勇氣등이 文化市民에 있어서 要求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民族共同體의 形成에 대한 勇氣가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勇氣는 民族共同體의 形成을 意圖하는 것에 對決하는 諸要素와 諸契機에 대한 斷을 宣言하는 勇氣이기도 하리라 이러한 諸要素와 諸契機에 대한 <抵抗의 勇氣>이

기도 하리라 따라서 이 勇氣는 武力革命과 獨裁, 暴力과 獨裁에 대한 積極的인 斷絶에 대한 自主的인 自己 確立으로서의 勇氣인 것이다. 이러한 勇氣가 確立될 때 우리들은 進展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階級的 自覺에 의한 階級 鬭爭에 대하여 이 勇氣를 自覺的 對自的인 意識으로 높여갈 때 우리들은 새로운 視野로 自己 自身을 옮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民族의 共同体는 어느 意味에서는 總體性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總體性은 特殊性을 媒介하지 않고서는 人倫性을 確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에 있어서 共通的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家族, 親知·隣人등의 連帶性인 것이다. 이러한 連帶性에는 確實히 結合의 不變性이 있는 法이다. 結合에로의 參與를 運命이라 생각하는 各々의 成員이 같은 피, 같은 집에 의하여 結合하려 한다.

이것은 人間의 本性에 있어서의 自然的인 基盤이다. 이 自然的 基盤의 不變性은 非合理的인 情緒的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外部 世界에 있어서 求할 수 없는 愛情, 親知의 關係를 確立하게 된다.

이 愛情, 親知의 關係에 의하여 連帶 感情이 成立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所屬 意識에 있어서의 愛情이 그리고 結合 統一에로의 意識에 있어서의 連帶가 成立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 <愛情과 親知, 이에 의한 連帶感情>을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다.

南北韓에 있어서의 民族共同體의 各各의 成員이 이 感情을 感觸하고 그것을 事實로서 體驗하고 이 感情에 따라서 統一을 目標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統一에로의 意志가 總體意志로서 確立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志는 各自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個體의 意志임으로 위로 부터 아래에로 目的, 意識的으로 要求되고 強要되고 強壓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부터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 成立하는 것이다.

民族 共同體의 形成은 우리들에 있어서 理念的인 課題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現實的인 課題로서 따라서 歷史的인 使命으로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그 形成은 그 自体 이미 現實的인 先行條件下에서 提起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民族 共同體의 形成은 現實的으로 어떤 特權階層의 逃避處일 수 없는 것이다.

世界史的인 觀點에서 그 흐름을 展望할진대 民族 共同體의 形成에로의 意圖가 어떤 特權階層과 直結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發見하게 된다.

지금에 있어서도 이러한 現象을 우리들은 發見할 수 있다. 즉, 6.25 動亂中 金日成 역시 "民族主義와 愛國主義를 強調"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때로는 <愛國心은 無賴漢의 最後의 避難處>로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民族的 共同體의 形成이 真正한 그 本義를 가질려면 그것은 現實的인 條件에 있어서 形成되어야 한다.

이 現實的인 條件이 經濟的 平等에 의한 民族 共同體의 各 構成員의 生存의 平等인 것이다. 生存의 平等은 分配의 均衡에 있고 社會的인 平等에 있다.

이러한 平等의 確保에 의해서 오직 社會的인 正義가 實現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하나의 價值觀이 定立될 것이다. 이것이

<平等의 確保>인 것이다. 가장 重要한 것은 가장 至難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確保가 現實的으로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南北韓의 接觸이 南北間의 統一에로의 始發點으로 보고 그 <共一感>의 基盤으로서 價值觀의 上位에 <民族意識에 의한 單一民族의 共同體>를 定位하였다. 이러한 定位된 價值觀에 対応하는 意識에 있어서 志向되는 價值를 檢討하고 構想하였든 것이다.

따라서 志向되는 價值에 民族의 構成員이 <共一感>을 反映한다면 統一에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길은 歷史的인 進展에 있어서 도달될 것이다.

말하자면 時間과 空間과의 制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의 距離感에 있어서 우리들은 宿命論者로 自處할 수 없다.

南北韓의 接觸에로의 狀況을 主体的으로 우리들은 形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韓國人の 意識 構造에는 언제나 宿命主義的인 諦念觀이 깃들고 있다. 이제 이 諦念觀을 벗어날 時期에 直面하고 있다. 時期의 이 成熟을 體驗하면서 위에서 展開한 價值를 價值序列에 있어서 秩序 統一지위 보았으면 한다.

勿論 南北韓의 接觸을 위한 價值觀의 構想에 異論이 있겠고 또한 위에서 展開한 價值의 序列에도 異論이 있을 것이다.

다만 筆者로서의 構想을 提示했을 뿐이다. 여기에 역시 筆者로서의 構想에 따라서 위에서 展開한 價值의 序列을 提示코자 한다.

즉, <平等의 確保>, <勇氣>, <愛情과 親知, 이에 依한 連帶感情>, <眞實과 謙遜>, <勤勞精神, 奉仕精神 및 獻身性>의 序列이라 하겠다. 이러한 序列은 上位의 價值觀에 根拠한 意識의 志向強度를 意味하는 것이다.

5. 結 論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 精神的 姿勢의 確立을 위한 價值觀의 定立은 南北韓의 國民이 무엇을 어떻게 期待하고 希求하고 있는가에 依存한다. 따라서 그 精神的 姿勢 및 態度가 역시 그것에 依存하고 있다. 그런데 精神性은 <純粹性>에 依拠하는 것이고 그것은 <作用性>을 갖지 않으면 現實의 形成에 따라서 意識의 形成에로 作用力을 發揮할 수 없다는 것이다.

價值觀에 의한 作用이 그 自体 目標로서 提起되지 手段으로서 提起된다면 적어도 價值觀이라는 側面에서 본다면 意義를 상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純粹한 精神的 姿勢의 確立에 있어서의 作用 限界가 있는 것이다. 이 作用 限界가 民族의 成員에 있어서 自覺的 對自的으로 深化되지 않는 限 現實적으로 그리고 具體적으로 現實的인 狀況은 形成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各 成員은 이 價值觀을 自覺的 對自的인 것으로까지 深化시켜서 <아래로 부터 위로>의 方向에 進출 수 있고 그 方向에로의 意志에 透徹할 것이 要請된다.

이 要請에 價值觀에 있어서의 限界가 있다. 이 限界는 또한 現實的인 與件과도 關聯된다.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의 現實的인 與件은 어떠한 것인가? 南北韓은 모든 領域에 있어서 區別되고 對決的인 姿勢 그리고 對立되는 <差異>를 內包하고 있다. 이 對立되는 <差異>를 現實的인 것으로 認識하는 것이 具體的인 것이라 하겠다.

이 具體的인 것은 解放後의 4半世紀라는 時間에 있어서 深化

되고 擴大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다. 이 時點에 있어서 接觸에
로의 時期가 成熟되고 있다하더라도 現實의 具體적인 것은 不變의
인 固定性을 持續하고 있다. 이것이 또한 限界인 것이다.

이 限界는 論理性에 있어서 否定 止揚될 뿐이고 狀況으로서
具體적인 것이다. 특히 이 具體적인 것은 教育과 教養을 통하여
더욱 兩極적으로 對立된 <差異>에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悲劇적인 것이 倫理의 範疇>라 하지마는 現實은 有無相通의
可能的인 通路를 막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限界가 있는 것이다.

現實에 있어서의 兩極적으로 對立된 <差異>는 一方이 他方에
로의 無條件적인 統合을 不許하고 있다. 無條件적인 統合은 物理的
力學的인 統合을 意味한다. 이것은 否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對立된 <差異>에 있어서 <優位性>의 確保가 必然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優位性>을 確立하고 이것을 提示함으로써 <아래
로 부터서의> 自覺의 方向을 遊導하는 方途가 있다.

이 方途가 自己에 있어서는 確實하고도 確實한 信念으로 他에
있어서는 期待의 對象으로 作用할 때 <優位性>에 의한 差異의
解決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는 우리들의 意志와 努力, 그리고 知性과 情熱이 要求될 것
이고 時間의 흐름이 要請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勇氣있는 忍
耐를 갖고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優位性에 定位할 수 있는 速度가 問題이고 이 問題
性에 또한 限界가 있을 것이다. 이 限界는 勿論 언제인가는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優位性의 確保는 우리들의 觀點을 必然적으로 價值外的 事態에로
돌리게 된다.

價值外的 事態는 國家에 있어서의 모든 領域을 包括한다. 그리고 이 모든 領域은 政治에 依한 統制에 直結되고 있다. 이 直結이 現實에 있어서의 作用力의 具體인 것이라 하겠다.

南北韓의 接觸에 있어서 이 優位性의 確保를 위하여 提起될 수 있는 모든 問題意識을 先導的으로 把握하고 解決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意識의 究明은 本論의 課題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問題意識에 依拠한 作用에 勇氣있는 忍耐가 要求된다는 것을 強調하는 동시에 政治에 依한 作用에 叡智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할 뿐이다.

註) (1) 李永鎬 : 民主主義의 意味, 韓國人의 價值觀 1972.1 ~

朝鮮日報揭載

(2) 同 : 韓國人의 價值觀

(3) 韓載德 : 千里馬에 올라 앉은 獨裁者 1962.10. 思想界

(4) 同書

(5) "

(6) 李植 G.O. 페이지 : 金日成個人獨裁의 形成 1963.10. 思想界

(7) 李東俊 同書

(8) "

(9) 韓載德 : 同書

(10) 同書

(11) "

(12) "

(13) "

(14) "

(15) 李永鎬 : 同 調査

